

순천시 '생태가 경제가 되는 도시' 꿈꾼다

국가정원 주요 현안 시민설명회 도시 전역 생태 정원화 추진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공감대 형성 스카이큐브 10월까지 기술 이전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의 자리가 마련됐다. 12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국가정원 주요 현안 대시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읍·면·동 주민 대표, 시민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순천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순천만 소형 경전철(PRT)인 '스카이큐브' 중재 사건 경과를 보고했다. 이어 오는 10월까지 범시민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기술이전을 받고, 11월까지 PRT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또 PRT 활성화와 발전 방향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까지 운영방식을 결정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9월부터 연말까지 총 3차례 정도의 시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민아이디어 수렴 장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준비 상황도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2013년 정원박람회 개최 후 10년만에 다시 개최하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 현실사업단의 실사를 마치고 이달 중 최종 단계로 볼 수 있는 기재부의 심의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23 정원박람회'는 기획부터 실행까지 시민 참여와 국가정원에서 도심까지 박람회를 확대하는 동천년 정원로드 구축, 생태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뒀다. 순천시는 기존 국가정원의 범위를 순천시 전 지

역으로 확대하고, 한반도 평화정원과 미래정원 조성, 세계정원 리뉴얼, 야간경관 추가, 겨울정원 축제 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기존의 남도특산품관을 활용해 역사관을 조성하고 국가정원 인근 해운산성을 복원해 정원 둘레길을 만드는 등 도시 전역의 생태정원화를 이룩해 '생태가 경제가 되는 도시'를 꿈꾸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 스카이큐브의 원활한 운영과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시민의 지혜를 모아가겠다"며 "이를 통해 순천의 새로운 친환경 랜드마크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여수 월호동 '치매안심마을 4호'



여수시가 '치매안심마을 4호'로 월호동을 지정했다.

여수시가 최근 치매안심마을로 월호동을 지정했다. 여수지역 네번째 치매안심마을이다.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월호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여수 신월초등학교, 경호초등학교, 봉산파출소, 여수사랑의원, 구봉새마을금고, 농협국동지점 등 월호동 7개 주요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또 통장단·노인회장단·부녀회장 등을 기억지킴이로 위촉했다.

지역지킴이는 지역 어르신들이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밀검사가 필요하면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치매 조기발견의 도우미 역할을 수행한다.

여수시는 앞으로 월호동에서 치매 인식개선 교육, 치매 선별검사 전수조사, 치매환자 맞춤형사례 관리, 치매파트너교육, 치매극복선도단체 양성,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여수시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치매안심마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소리면을 시작으로, 한려동(2018년), 서강동(2019년)에 이어 올해 월호동을 지정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2020 한국문화가치대상'

곡성군, 전남 유일 우수상

곡성군은 전남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020 한국문화가치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사)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가 주최하는 한국문화가치대상은 지역마다 특색 있는 우수 문화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시행한다.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한국문화가치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올해 대회에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와 문화재단 등 181개 기관이 응모했다. 1·2단계 예비심사와 조직역량, 사업성격, 사업성과 등 3개 항목 10개 평가지표에 대한 본심사를 거쳐 최종 33개의 우수기관이 선정됐다.

곡성군은 '문화경관 조성과 시설' 분야에서 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한 곡성을 시가지 경관 개선,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 낙후지역 경관을 개선할 중앙로 리브 프로젝트 등이 큰 점수를 받았다. 또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권역별 숲 체험공간 조성, 주민주도형 사계절 체험관광상품 '곡성 한바퀴', 청년 장사꾼거리 조성 등 세대를 아우르는 특색 있는 공약 성과들이 심사위원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고흥 녹동~제주 성산 1만5000t급 카페리 16일 취항

준크루즈급 '선라이즈 제주' 승객 630명·차량 170여대 수송



남해안의 물류 거점항인 고흥 녹동항이 제주도의 관문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주)에이치해운에 따르면 고흥 녹동-제주 성산 바닷길을 준크루즈급 카페리 '선라이즈 제주' (사진)가 오는 16일 취항식을 갖고 본격 운항에 들어간다.

'선라이즈 제주'는 지난 2018년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로 한일고속에 인도된 '실버클라우드'와 '골드스텔라'에 이어 세번째로 건조된 선박이다.

'선라이즈 제주'는 1만5000t급 카페리 선박으로 630여명의 여객 및 승용차·트럭·화물차 등 170여대를 동시에 실을 수 있다. 카페리 운항의 특성을 살린 휴게실, 수면용 의자석, 다양한 객실 등이 섬

세하면서도 고급스럽게 꾸며졌다. 평균 시속은 21노트로 고흥 녹동에서 제주 성산까지 3시간30분이 소요된다. 당분간은 녹동에서 오후 5시에 출발해 성산항에

8시30분 도착하며, 제주에서는 오전 8시30분에 출발해 녹동항에 12시 입항한다. 추후 운항시간은 조정될 예정이다. 요금은 VIP실 2인 침대 14만원·의자 5만7000

원, 1등실 2인 침대 12만5000원·의자 57000원, 2등실 4인 침대 7만5000원·의자 5만7000원, 3등실 3만3000원 등이다. 주말과 성수기에는 10% 할증되며, 7월 말까지는 30~50% 할인 운행한다.

녹동항은 기존 제주항을 오가는 아리온 제주호(승객850명, 승용차 기준 230대, 3시간30분 소요)와 함께 제주도 뱃길이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녹동항은 제주도 밀감과 농수산물, 삼다수 생수 등 화물선으로 연간 60여만의 물동량을 소화하는 등 명실상부한 남해안의 물류 거점항은 물론 제주도의 관문항으로서의 위치를 굳힐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호 에이치해운 대표이사는 "신규 항로 개설에 따라 안전운항을 최우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의 증진에 전력을 할 것"이라며 "선명인 선라이즈 제주와 같이 성산포 일출을 맞이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경험을 여행객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에이치해운은 인천-백령도 쾌속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울릉도와 부산 대마도를 운항하는 (주)대아고속훼리의 관계사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순천만 주변 가금농장 2곳 철거, 철새 습터로 복원

국비 22억 등 25억원 투입 조류 인플루엔자 원천 차단

순천시가 순천만 주변 가금농장 2곳을 철거해 철새 습터로 복원한다.

12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은 인근 주민 건의로 지난 2018년 환경부 동천하구 습지 개선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순천만 갯벌과 제방을 사이에 두고 14만여 마리를 사육하는 육계농장 2곳이 습지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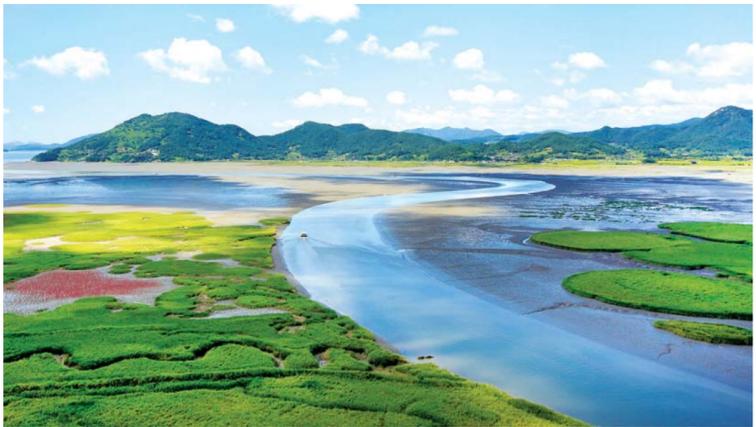
순천시는 환경부로부터 국비 22억 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25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에 보상을 마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환경 저해시설을 철

거하고 철새 습터를 조성해 철새 서식지의 질을 높여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토환경의 녹색복원으로 생태계·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고 야생조류의 안전한 서식지 확보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 방지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코로나19 유행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야생생물과 인간의 경계 관리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며 "탐사르 습지도 순천의 습지 복원 사업은 안전한 생태관광지 확대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순천형 그린뉴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가 순천만 주변 가금농장 2곳을 철거, 철새 습터로 복원한다. 사진은 순천만 습지. <순천시 제공>

☎ 062-412-2800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광주에서 30~40분 소요

수목장 묘지이장 문의